

楊州地域 佛書 刊行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ublication of Buddhist Books in the Region of Yangju

백 헤 경(Hae-Kyung Baek)*

송 일 기(II-Gig Song)**

목 차

- | | |
|-----------------|--------------|
| 1. 서 론 | 4. 내용별 분석 |
| 2. 양주의 연혁과 불서간행 | 5. 판종별 형태 분석 |
| 3. 간행처별 분석 | 6.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조선시대 경기도(京畿道) 양주지역(楊州地域)에서 간행된 불서의 현존하는 판본을 조사, 분석하여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고서소장목록과 목판을 조사결과 총 99종의 불서가 14개 사찰에서 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시기적으로 조선 후기 간행이 활발하였으며, 불암사본이 53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행불서의 성격은 위경, 밀교, 반야계통의 경전이 주류를 이루었고, 판종별로는 목판본이 85종, 목활자본이 14종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icate the properties of the existing xylographic books in Buddhism published in the old region of Yangju, Gyeonggi-do by investigating them and carrying out the analyses of them. For this, we have investigated, in addition to literature and xylographic bibles, Buddhist books which are now possessed by principal libraries and temples in Yangju. 99 kinds of Buddhist books had been published by 14 temples at the region of Yangju. It is in the late Chosun that Buddhist books in the region of Yangju were actively published. Bulamsa has published the greatest amount of 53 kinds of books. we can find out that Buddhist bibles were actively published, and uncanonical books and Esoteric Buddhist bibles with strong characteristics of worldly benedictions and Praja-Paramita emphasizing the thought of emptiness. As for publishing methods, 85 kinds of books were xylographic and 14 kinds of books were published with wooden types. There were direct and indirect supports from the ruling class on most of the temples that published Buddhist books. Temples happened to co-publish Buddhist books.

키워드: 양주, 불서, 불암사, 사찰판, Yangju, Buddhist Book, Bulamsa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merlin75@dreamwiz.com)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igsong@cau.ac.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12월 13일

1. 서론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불교가 前秦에서 전래된 이래 교육과 신앙의 목적으로 불서에 대한 寫經이 계속적으로 행해졌고, 라말려초에 이르러 일시에 동일한 서적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목판인쇄가 행해지기 시작했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국교로 삼아 장려하여 국민 신앙생활이 날로 활발해졌으며, 승려를 우대하고, 사원경제도 풍요하였다. 왕실, 귀족, 權臣 및 부호한 개인들이 國泰民安과 功德, 追薦을 기원하는 施主佛事를 활발하게 실시함에 따라 불서의 간행이 꾸준히 촉진되었다.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崇儒抑佛' 정책이 시작되면서 국가와 왕실에 의한 간경사업은 크게 위축되었지만, 뿌리박힌 佛心과 신앙은 여전히 사찰을 찾아 사찰과 개인시주자들에 의한 간행으로 변화되었다.

경기지역 중 양주는 서울의 북동쪽에 접한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로 조선시대에는 서울시 일부,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을 포함하는 거대한 행정구역이었으며, 수도 한성을 최측근에서 保佐, 防禦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중요 지역이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신라시대 창건된 우수한 사찰들이 많이 위치해 있다. 조선초기 최대 사찰이었던 檜岩寺를 비롯하여 명종때 教宗의 首寺刹로 지정된 奉先寺, 왕실의 願刹과 願堂 등 많은 사찰들이 지배계층의 비호와 경제적인 지원 속에 그 명맥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불서간행도 활발하여 조선시대 寺刹板으로 가장 오래된 회암사의 「人天眼目」을 위시한 많은 불서들이 양주에 소재하는 사찰에서 간행

되었다.

연구대상 지역인 경기도 양주는 조선 태조 4년(1395)에 명칭이 변경된 이래로, 한일합방(1910) 이전까지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는 물론,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미금시, 의정부시, 연천군, 포천군, 고양시가 포함되며, 그리고 서울시 노원구·중랑구가 모두 해당되고 도봉구·성동구·은평구·송파구의 일부를 포함한 넓은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양주라는 명칭이 본격 사용된 조선시대에 이 지역에서 간행된 불경, 論疏 등의 불서 및 승려들의 저작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비록 사찰에서 간행되었다하더라도 符籍, 도서목록, 族譜 및 불교적 성향이 전혀 없는 개인문집 등은 제외하였다.

연구를 위해 우선 양주의 역사와 이 지역에 소재 사찰을 조사하고, 책판목록 등을 통해 불서 간행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양주 지역에서 간행된 불서는 전국의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를 조사하여 작성한 송일기 교수의 〈전국사찰간행불서목록〉을 참고하여 대상 불서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파악된 불서를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주요 도서관의 〈古書目錄〉과 고서DB를 검색한 후 직접 방문하여 실물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문헌 및 실물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주 지역에서 간행된 불서의 간행처별, 내용별, 판종별 형태 분석을 통해 인쇄문화 발달과정과 양주불교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양주지역 사찰에서 간행된 경판을 분석하여 양주지역 불교의 흐름과 사찰의 성향, 신앙형태와 관련된 사실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양주의 연혁과 불시간행

2.1 양주의 역사

지금까지 양주지역을 포함한 한강유역에서는 대략 30여 곳에 구석기 유적이 조사된 바 있다. 임진강변의 쏘골리 를 비롯해서 그 주변지역인 연천군과 파주시 일대의 운탄리, 新畚里, 長坡里, 楠溪里, 金坡里 및 橋門里 등의 구석기 유적들이 조사되었다.

이들 유적에서 전기 구석기시대에서 후기 구석기시대까지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양주를 포함한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 일대는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양주지역의 신석기 문화유적은 구리시와 미금시 지역을 비롯하여 와부읍과 隱縣面 등 여러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양주 일대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 중 농경과 유관한 半月形 石刀, 有溝石斧 등 각종 석기류의 출토는 당시 양주지역이 농경에 적합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초기 철기시대의 양주지역은 고조선 남부지역에 형성되었다는 三韓 가운데 하나인 馬韓의 영역 내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국시대에 양주 일대를 제일 처음으로 확보한 국가는 백제였다. 「三國史記」〈百濟本紀〉에는 백제의 4대왕 蓋婁王 5년(132)에 北漢山城을 쌓았고, 제21대 古爾王 15년(469) 10

월에 북한산성에 병사를 주둔시켰다고 하였다. 475년 고구려 長壽王의 남진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곳은 백제에 이어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당시 고구려는 현재의 양주읍 일대에 買城郡을, 지금의 은현면과 동두천시 일대에 內乙買縣을 각각 설치하였다. 그 후 신라가 삼국 통일한지 89년이 지난 757년(경덕왕 16)에는 매성군을 來蘇縣으로, 내을매현를 沙川縣으로 바꿔 불렀다.

고려왕조가 개창되면서 비로소 '楊州'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高麗史」卷56 지리10 지리1에는 신라 景德王 14년(755)에 北漢山州를 漢陽郡으로 만들었고, 고려초기에 다시 양주로 고쳤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의 양주시 일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北漢山과 한강으로 둘러싸인 서울 일대를 가리키던 이름이었다. 현재의 양주지역은 見州로 불리고 있었으며, 顯宗 9년(1018) 양주에 편입되었다.

조선시대 태조 4년인 1395 漢陽府를 고쳐 漢城府라 하고, 기존의 衙前과 백성들을 건주(오늘날의 양주읍 고읍리 일대)로 옮기고 행정구역명을 楊州郡으로 고쳤다.¹⁾ 태조 6년(1397)에는 楊州府로 昇格되었다가,²⁾ 태조 13년(1413) 都護府가 되었고, 世祖 12년(1466) 官制改革에서 楊州牧로 다시 승격되었다. 중종 1년(1506) 治所를 佛谷山 남쪽 維楊里로 옮겼다. 高宗 32년(1895) 5월 26일 勅令 제98호에 따라 楊州郡으로 변경되었다.

1) 「太祖實錄」卷7, 太祖 4年 6月 戊辰條 “改漢陽府 爲漢城府 移其吏民于見州 爲楊州郡”

2) 「太祖實錄」卷11, 太祖 6年 1月 丁丑條 “降楊州郡陽 爲府”

한편 「楊州牧邑誌」에는 1394년 지금의 서울에 도읍이 정해지자 古楊州의 나머지 지역이 知楊州事로 강등되고 府治가 東村 大洞里(지금의 아차산 남쪽)에 정해졌다가 1396년 구 건주로 옮겨졌다하여 실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太祖三年定都 漢陽府即古楊州 以府治于東村大洞里 降爲知楊州事 未幾復降爲府 六年又移府治于見州古址仍稱楊州”)

이상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조선시대의 양주군은 현재의 양주시 지역 외에도 경기도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미금시,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중랑구 전부와 경기도 연천군, 포천군, 고양시, 서울시 도봉구·성동구·은평구·송파구 일부를 포괄함을 알 수 있다.

2.2 양주의 사찰

양주에는 신라시대부터 창건된 우수한 사찰들이 많으며, 송유역불의 조선시대에도 왕실의 陵寢寺刹³⁾ 또는 願刹, 願堂으로 지정되어 사세가 번창하였다. 여기서는 양주의 대표적 사찰, 특히 불서를 간행한 사실이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1 內院庵

南楊州市 別內面에 있는 내원암은 水落山에 있는 사찰로 신라 때 창건되었다고 하며, 조선시대 肅宗 때(1674-1720)부터 이 절은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세를 확장했다. 1693년(숙종 19) 숙종은 八空山 把溪寺의 靈源을 불러 수락산에서 백일기도를 올리게 한 뒤 英祖를 얻었다고 한다. 이어 正祖 때(1777-1800)에는 파계사의 仁岳 龍坡와 三角山 金仙寺의 龕山이 이 절과 금선사에서 각각 왕자의 탄생을 위해 기도하던 중 농산이 용파의 청으로 왕자로 환생하기 위해 綏嬪 朴씨에게 수태되어 1790년(정조 14) 6월 純祖로 태어났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1794년(정조 18) 七星閣을 지어 光膺殿이라는 扁額을 賜하고, 妙香山

에서 16羅漢像을 모셔 왔는데, 五百羅漢이 常住한다는 송도(개성)의 聖居山에 건주어 정조가 聖寺라고 이름 지었으며, 지금까지도 이 절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2.2.2 道詵寺

서울시 江北區 牛耳洞 道峰山 도선사는 862년(신라 경문왕 2) 烟起 道詵에 의해 창건되었고, 道詵庵이라 하였다. 1863년(조선 철종 14) 金左根의 施主로 중수하고 칠성각을 신축했으며, 1864년(철종 15) 「太上玄靈北斗本命延生真經」을 간행하였다. 1887년(고종 24) 任準이 釋尊舍利五層塔을 건립하고 그 속에 釋迦牟尼 부처님의 舍利를 奉安했다. 1903년 慧明이 고종의 명을 받아 大雄殿을 중건했으며, 1904년(광무 8) 國家起原道場으로 지정받고, 寺名을 도선암에서 도선사로 변경하였다.

2.2.3 望月寺

의정부시 虎院洞 도봉산 망월사는 639년(신라 선덕여왕 8) 海浩가 창건했다. 해호를 존경한 선덕여왕이 이 암자가 있는 도봉산 東臺의 옛 산성 이름인 望月城의 이름을 따 망월사라고 했다. 1066년(고려 문종 20) 慧炬 국사가 중창했다. 그 뒤 14차례의 兵禍와 戰亂으로 荒廢해졌다가 1691년(조선 숙종 17) 東溪 高明이 중건했다. 이어 暎月이 1779년(정조 3) 先月堂을 세웠고, 1780년(정조 4) 大雄殿을 중건했다. 1800년 木板으로 眞言集을 판각했는데, 정교하고 조각 수법이 섬세하여 목판인쇄사의 자료적 가치가 크다.

3) 왕족의 陵을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내주고 陵主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창건된 사찰

2.2.4 寶光社

남양주시 和道邑 天磨山 보광사는 조선 고종 때 領議政에 오른 李裕元(1814-1888)이 判府事때인 1851년(철종 2) 당시의 고승 華潭 敬和를 위해 창건되었다.⁴⁾ 또한, 이유원은 靑나라 燕京에 갔을 때 琉璃廠의 書店에서 구입한 「金剛般若波羅密經」 등의 불서를 찍어내기 위해 보광사에서 木活字를 만들었고, 1869년에 「金剛經石註」, 「普徧光明焰鬘清淨熾盛如意寶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求陀羅尼經」, 「三峰集」, 「六祖大師法寶壇經」 등이 간행되었다.

2.2.5 奉印寺

남양주시 眞乾面에 있는 봉인사는 언제 누가 창건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1619년(조선 광해군 11)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中國에서 모셔 오자 이듬해 5월 光海君이 禮官에 명하여 天磨山 봉인사로 보내어 동 二百步의 위치에 釋迦法印塔을 세우고 堂을 지어 禮로 받들어 마쳤다는 기록이 있다.⁵⁾ 1860년(철종 11)년 「修禪結社文」을 간행하고, 1864년(고종 1)에는 慧庵, 幻翁이 塔法堂을 창건하였다. 1883년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을 간행하였고, 1887년(고종 24)에는 왕가에서 나라를 위해 致誠하라는 뜻으로 香燭을 하사했는데, 승려들이 黃燭燈을 법당 중앙에 달고 밤을 새우다가 불이 나 큰방과 노전 두 동만 남게 되었다. 1889년(고종 26) 부속암자인 浮圖庵에서

「禪門拈頌集說話」를 간행했다.

2.2.6 佛巖寺

남양주시 별내면 佛巖山에 있는 불암사는 824년(신라 헌덕왕 16) 九山禪門 중의 하나인 曦陽山派를 일으켰던 智證 국사 道憲 智誥이 창건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선은 824년에야 태어났으므로 信憑性이 없다. 烟起 道誥(827-898)이 중창했으며, 無學 自超(1327-1405)가 중창했다. 조선 세조 때(1455-1468) 王城 四方에 왕실의 원찰을 하나씩 정할 때에는 東佛巖이라고 하여 뽑혔다. 1638년(인조 16) 仁祖의 명으로 역대 승려의 法統 繼承 관계를 판각한 「釋迦如來成道應化事蹟記」가 간행되었는데, 212매인 이 冊版은 현재 보물 제591호로 지정되어있으며, 禪雲寺와 이 절에만 보존되어 있는 貴重本이다. 1776년(영조 52) 瑞岳 明瓘이 禪堂 신축을 시작으로 1782년(정조 6) 普光明殿과 觀音殿 중수하는 등 절의 면모를 日新하여 1786년 落成했다. 1795년(정조 19)부터는 불암사 불서간행의 전성기가 시작되는데, 1795년 「增訂敬信錄」 등 14종, 1796년 「敬信錄諺釋」 등 6종, 1797년 「金剛般若波經羅蜜」 등 9종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1844년(헌종 10)에는 佛殿과 寮舍를 중수했으며, 1853년(철종 4) 화주 普城이 제월루를 중수하고, 春峯이 香爐殿을 다시 세웠으며,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이 간행되었다.

4) 고려 광종(949~975) 때 慧炬가 창건하고, 1851년 이유원이 중창했다는 설도 있다.

5) 한편 「奉先本末寺址」의 「浮屠庵沿革記」에는 “광해군 11년 己未에 개창하고 浮屠庵이라 명하니 봉인사의屬庵으로 該寺 및 此庵의 초창은 문헌이 無徵이나 「塔法堂倉建記文」에 의하면 萬曆 己未에 釋迦法印을 봉하였다 한즉 본암은 법인탑을 수호하기 위해 창건되고 봉인사도 법인을 봉안하였다는 취지하에 同時開創이 아닌가 하는 추정에 의하여 本庵開創을 광해군 11년으로 단언한다”고 되어 있다.

2.2.7 重興寺

고양시 北漢洞 북한산 露積峰에 있는 중흥사는 938년(고려 태조 21) 태조 王建이 國泰民安을 빌기 위해 절터를 물색하여 창건했다. 1713년(조선 숙종 39) 북한산성 築城 후僧軍이 주둔했던 龍庵寺를 비롯하여 輔國寺, 普光寺, 扶旺寺, 圓覺寺, 國寧寺, 祥雲寺, 西巖寺, 太古寺, 鎮國寺 등을 관장했으며, 僧大將이 머물렀던 북한산성의 僧營으로 왕실에 바치는 중요한 藥料의 造煉을 담당했다. 1721년(경종 1) 「天地冥陽水陸齊儀梵音刪補集」을 간행하였다. 1894년(고종 31) 火災가 났고, 1915년 洪水로 무너진 뒤 중건되지 못했다.

2.2.8 興國寺

興國寺는 내원암과 같이 남양주시 별내면 수락산에 위치하고 있다. 「奉先本末寺誌」에 의하면 599년(신라 진평왕 21) 圓光이 창건하여 水落寺라고 했다고 한다. 1568년(선조 1) 宣祖가 이 절에 자신의 아버지인 德興大院君의 冥福을 빌기 위해 원당을 짓고 편액을 내려 興德寺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사람들은 이 원당 때문에 덕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626년(인조 4) 조정에서 흥국사로 이름을 바꿨고, 1790년에는 나라에서 임명하는 관리들이 머무르면서 왕실의 안녕을 비는 五糾正所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1871년(고종 8년) 「불설아미타경」을 간행하였고, 1907년(광무 11) 姜在喜가 각 법당의 기와를 바꾸고, 또 대웅전 三尊像에 금칠을 다시 하였다.

2.2.9 回龍寺

의정부시 호원동 도봉산 蓮峰에 위치한 회

룡사는 681년(신라 신문왕 1) 義湘이 창건하여 法性寺라고 했다. 930년(경순왕 4) 동진 洞眞가 중창했으며, 1070년(고려 문종 24) 국사 慧炬가 중창했다. 이어 1384년(우왕 10) 無學自超가 중창했다. 1384년 李成桂는 자초와 함께 이 절에 와서 3년 동안 국가 창업 성취를 위해 기도했는데, 뒤에 왕위에 오른 이성계가 이곳으로 자초를 찾아와 절 이름을 회룡사라 했다고 한다. 또 일설에는 1403년(조선 태종 3) 태조가 끈질긴 咸興差使들의 노력에 의해 노여움을 풀고 귀경한 뒤 이 절로 자초를 찾아왔으므로 자초가 回鸞龍駕를 기뻐하여 회룡사라 했다고도 한다. 1630년(인조 8) 禮順이 중건했고, 1636년(인조 14) 「水陸無遮平等齊儀撮要」가 간행되었다. 1881년(고종 18)에는 大應이 중창했다.

2.2.10 檜岩寺

양주시 檜泉邑 天寶山 회암사는 언제 누가 창건했는지 알수 없다. 1313년(충선왕 5) 太古普愚가 이 절에서 廣智에게 出家했고, 1344(충혜왕 복위 5) 懶翁 惠勤이 이 절에서 수도하던 중 깨달음을 얻었다. 1372년(공민왕 21) 혜근이 恭愍王의 명으로 이 절에 와서 指空의 舍利塔을 건립하고, 1374년부터 2년 동안 266칸의 대규모 중흥 불사를 벌여 1376년(우왕 2) 혜근의 제자 覺田이 완공했다. 1391년(공양왕 3)에는 恭讓王이 왕비와 세자를 데리고 와서 徹夜禮佛을 올렸다. 조선 태조 李成桂는 1393년(태조 2) 無學 自超를 이 절에 머물게 하고, 많은 불사와 범회에 참석하기 위해 7번이나 이 절에 다녀갔다. 1395년 자초에 의해 元나라 高麗大聖壽慶禪寺에서 晋城君 姜金剛이 重刊

한 「人天眼目」이 번각되었다. 1424년(세종 6) 禪敎兩宗으로 統廢合할 때에는 禪宗에 속했으며, 250명의 승려가 머물러 조선 最大의 절이 되었다. 1435년(세종 17) 孝寧大君은 이 절의 중건을 지원했으며, 1449년(세종 31)에는 「佛說四十二章經」을 간행하였다. 1472년(성종 3) 世祖妃 貞熹王后가 疲弊한 이 절을 鄭顯祖와 處安에게 명하여 대대적으로 중창했다. 明宗 때(1545~1567)에는 文定王后가 佛教再興政策을 펴자 전국 제일의 修禪道場이 되었다.

2.3 양주지역 불서간행 현황

이상으로 양주의 역사와 대표적 사찰에 대해 알아보았다. 양주지역 불서의 간행현황을 살펴보고자 「故事撮要」, 「古書冊版有處攷」, 「冊版

置簿冊」, 「諸道冊版錄」, 「各道冊版目錄」 등의 冊版目錄을 조사하였으나, 「각도책판목록」에서 成佛寺의 「釋氏源流」와 「七星經」 2종의 목록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물본이 전하지 않는데다 목록에도 간행년이나 판종 등 상세정보를 알 수가 없어 간행사실만 참고하고 차후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조사된 자료를 卷首題를 基本書名으로 정리하고, 書誌事項을 담은 〈양주지역의 사찰 불서간행 종합목록〉을 작성하였다(논문 뒤의 〈부록〉 참조 바람). 이에 의하면 양주지역에서는 99종 53책의 불서가 14곳(간행처 미상 1곳 포함)의 간행처를 통해 간행되었으며, 목판본 85종 48책, 목활자본 14종 10책 이었다. 〈표 1〉은 경기 양주지역 소재 사찰의 불서간행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양주지역 소재 사찰의 불서간행 현황

간행처	판종별 간행				계	
	목판본		목활자본			
	종수	책수	종수	책수	종수	책수
감로사	16종	9책	6종	4책	22종	13책
내원암	3종	3책	-	-	3종	3책
덕사	1종	1책	-	-	1종	1책
도선암	1종	1책	-	-	1종	1책
만회암	-	-	2종	1책	2종	1책
망월사	1종	1책	-	-	1종	1책
미 상	1종	1책	-	-	1종	1책
보광사	-	-	5종	4책	5종	4책
보정사	1종	1책	-	-	1종	1책
봉인사	3종	2책	1종	1책	4종	3책
불암사	53종	25책	-	-	53종	25책
중흥사	1종	1책	-	-	1종	1책
회통사	1종	1책	-	-	1종	1책
회암사	3종	2책	-	-	3종	2책
계	85종	48책	14종	10책	99종	58책

3. 간행처별 분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주지역에서는 15곳의 간행처에서 99종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가장 많은 불서를 간행한 곳은 불암사로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53종의 불서를 간행하였고, 감로사와 보광사가 22종과 5종의 간행빈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각 간행처별로 간행불서를 분석한 것이다.

3.1 甘露社

三角山 감로사는 1878년~1908년까지 30년간 22종의 불서를 간행하였으며, 목판본이 16종, 목활자본이 6종이었다. 19세기말까지 般若思想과 禪敎의 語錄 등 교육과 敎化에 관련한 서적이 간행되었으나, 20세기 초에는 密敎와 僞經係 呪術的인 神呪經이 간행되었고, 漢文本과 諺解本을 合本하고 있다. 22종의 불서중 경전은 15종이 간행되었으며, 般若와 法華, 經集, 밀교 僞經 등 그 내용이 다양하다. 「佛說天尊却癰疽神呪經」은 2가지 종류의 책이 간행되었는데, 한문본과 언해본을 합본하여 간행한 것과 「불설천존각온황신주경」 한문본, 언해본과 「千手經」 언해본, 「高王觀世音經」 한문본, 언해본을 합본한 것이 있다.

그동안의 불서간행은 일반적으로 사찰이 施主者를 모아 간행하거나 또는 시주자가 사찰에 依賴하여 불서를 간행하였다. 그러나 감로사 신도인 姜在喜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서를 간행하고 이를 配布하였다.⁶⁾ 그가 간행한 「佛

說天地八陽神呪經」에는 “이 경의 제7 장판이 闕失되어 重刻하였다”는 간기가 있는데, 板式 및 書體 등과 「參禪曲」, 「勸禪曲」과의 합본으로 미루어 볼 때 原本은 1795년에서 1797년 사이 간행된 佛巖寺板 「불설천지팔양신주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감로사본의 판식은 불암사 중각본인 위 3종을 제외하면 모두 비슷하였다. 匡廓은 목판본이 「戒殺方生文」 1종 외엔 모두 四周雙邊이었고, 목활자본은 四周單邊이었으며 行款은 모두 10행 20자였다. 魚尾의 경우 목판본은 上二葉花文魚尾 5종, 上黑魚尾 2종, 無魚尾 1종이었으며, 목활자본은 上白魚尾로 감로사본은 上魚尾를 選好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 內院庵

내원암은 1853년 3종의 목판본을 간행하였으며, 경판은 현재 남양주시 별내면 수락산 興國寺에 보관되어 있다. 내용면에서 淨土宗의 根本經典으로 釋迦如來가 여러 가지 煩惱에 물든 衆生을 위해 阿彌陀佛의 救濟를 說한 淨土三部經에 속하는 경전 2종과 文集 1종이 간행되었으며, 판식은 四周單邊에 10행 20자, 內向二葉花文魚尾를 가진다.

3.3 寶光社

보광사는 모두 5종의 목활자본을 간행하였는데, 당대의 高僧이 駐錫했던 사찰인 만큼 空사상의 기초가 되는 般若經典인 「金剛經」과

6) 계살방생문, 불설천지팔양신주경,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3종을 간행하였다.

중국 南宗禪의 근본이 되는 禪書인 「六朝壇經」 등 禪宗係 불서와 화담의 문집인 「三峰集」을 간행하였다. 목활자 즉 寶光社字는 창건자 이유원이 청나라 燕京에 갔을 때, 琉璃廠의 서점에서 구입한 「金剛般若波羅密經」 등의 불서를 찍어내기 위해 만든 나무활자이다. 이 活字의 글자체는 연경에서 구입해온 청나라 판본의 印書體 글자를 닮게 새겨 만든 것임을 一見하여 알 수 있는데, 새김이 거칠어 글자 획의 굵기와 가늘기가 일정하지 않고 또한 글자 모양이 가지런하지 못하여 인쇄가 粗雜한 편이다.(천해봉 2001, 121- 123) 이들 목활자본은 모두 같은 해 간행되었고, 四周雙邊에 10행 20자, 上白魚尾의 형태적 특징을 가지며, 「六朝大師法寶壇經」만 行款이 9행 18자로 이루어져 있다.

3.4 奉印寺

봉인사에서 1860년부터 4종의 불서가 간행되었으며, 목판본 3종, 목활자본 1종이다. 특히 大乘 · 圓頓⁷⁾의 교리를 설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동일한 판식으로 볼 때 1882년 감로사에서 간행된 목판에 刊記부분만 따로 새겨 넣어 간행한 것으로 보이며, 「禪門拈頌集說話」는 봉인사의 部屬庵子인 부도암에서 간행한 목활자본이다. 간행불서의 내용으로 보아 선종계 사찰로 추측되며, 행관은 목판이 10행 20자, 목활자가 10행 21자의 특징을 지닌다.

3.5 佛巖寺

불암사는 양주지역 사찰 중 가장 많은 53종의 불서를 목판으로만 간행하였다. 1974년 9월 26일 불암사 경관 591枚가 京畿道有形文化財 제53호로 지정되었고, 이들은 東竺堂 다락 위에 架藏되어 있는데, 兩端에 나무를 끼어서 板木이 모양을 잃지 않게 하였고 材木은 자장목을 사용하였다. 다른 사찰들의 경우 불서간행이 一回性 사업이거나 길어야 1세대 를 넘기지 못하는 데 반하여 불암사는 1673년부터 1853년까지 무려 3세기에 걸쳐 목판인쇄에 의한 불서간행을 이어왔다. 따라서 이 불서들은 당시의 목판인쇄 문화와 불암사의 종교적 역할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釋迦牟尼의 一代記와 그의 역대 제자 244인의 史蹟을 묘사한 그림이 있는 보물 제591호인 「釋迦如來成道應化事蹟記」이다.

단일경전으로는 「金剛經」과 「父母恩重經」이 각 5종으로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또 비교적 내용이 적은 불서들은 다양하게 합본된 형태로 간행되었는데, 「佛說大乘無量壽莊嚴經」은 「佛說高王觀世音經」과 합본인 것과 「眞言要抄」, 「佛說大報父母恩重經」 「불설고왕관세음경」의 합본이 있고, 異本으로 「진언요초」와 「불설대보부모은중경」만 있는 것도 있다. 「佛說長壽滅罪護諸童自陀羅尼經」은 「佛說壽生經抄」와 합본인 것과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이 더해진 것도 있다. 「佛說天地八陽神呪經」은 「佛說歡喜龍王經」, 「佛說龍王經」, 「佛說明

7) 원돈교의 준말로 원(圓)이 곧 돈(頓)이라는 「화엄경(華嚴經)」의 교리에 의거, 해설한 성불론이다.

堂神經」, 「佛說安宅神呪經」의 여러 위경이 합본인데, 여기에 「불설대보부모은중경」과 「參禪曲」이 더 합본된 경우, 또는 「불설수생경초」, 「佛說十二摩訶般若波羅蜜多經」이 더해진 경우도 있다.

간행시기별로 보면 17세기 4종, 18세기 46종, 19세기 2종, 17에서 19세기 사이가 1종으로 대부분의 불서가 18세기에 간행되었으며, 1795년과 1797년 3년 사이 무려 41종의 불서가 간행되어 불암사 목판인쇄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광곽은 사주쌍변이 44종, 행관은 11행 22자가 34종, 어미는 내향2엽화문어미가 40종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불암사 목판의 대표적 판식이 사주쌍변, 11행 22자, 내향2엽화문어미임을 알 수 있다.

3.6 檜岩寺

회암사는 麗末鮮初 고려와 조선 두 王朝의 願刹이었을 뿐 아니라 惠勤, 自超 두 고승이 駐錫했던 최고의 사찰이었다. 王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人的 또는 物的으로 풍부한 회암사의 환경은 다른 사찰보다 앞서 불서의 간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1395년(태조 4) 無學 自超는 「人天眼目」을 간행하였으며, 1449년에는 「佛說四十二章經」과 「佛遺教經」이 간행되었다. 회암사에서 간행된 3종의 불서는 모두 목판본이며, 「인천안목」은 양주지역에서 간행된 불서중 유일하게 左右雙邊의 광곽을 가졌다. 「인천안목」은 10행 20자에 上黑魚尾이며,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은 8행 17자에

內向黑魚尾를 가진다.

3.7 기타

이상에서 살펴본 사찰 외에도 경기도 양주지역에 소재하는 8개 사찰에서 각각 1책씩 불서를 간행하였던 사실이 보이고 있다. 이 중 덕사는 德興大院君의 陵寢寺刹로 1871년 「불설아미타경」을 간행하였는데, 현재 목판이 그 後身인 興國寺에 보관중에 있다. 또한, 興國寺에는 간행처 미상인 「불설아미타경」 목판 1종이 보관되어 있는데, 홍국사가 같은 水落山내에 있는 內院庵의 경판을 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두 사찰 또는 인근사찰에서 開板한 목판이 보관이나 기타의 이유로 홍국사로 이동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형태적 면에 있어 덕사 간행본이 사주단변으로 10행 18자의 행관에 上一葉花文魚尾를, 내원암본이 사주단변에 10행 20자 內向二葉花文魚尾를 가져 사주쌍변, 7행 14자 註雙行, 無魚尾인 「불설아미타경」과는 차이가 있다.

862년 道詵이 창건하고 1863년 당시 勢道家 金佐根의 施主로 중수한 道詵庵에서 1864년에 간행된 「太上玄靈北斗本命延生真經」도 板刻과 印出은 도선암에서 하고 경판은 廣州 修道山 奉恩寺로 移安하여 보관한다는 刊記가 있다. 형태는 행관이 5행 12자로 글씨가 큰 것이 특징으로 간기에 書師⁸⁾ 比丘 奉衍과 海雲堂 天雨 書寫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당대 名筆에 글씨를 의뢰하고 이를 그대로 판각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8) 붓글씨에 능한 사람. 書家

晩悔菴에서는 華潭의 「三峰集」과 「華潭大師浮屠碑銘」이 간행되었는데, 寶光社本과 書體, 刊行年 및 板式이 동일하고 刊行處만 다른 것으로 보아 공동으로 판을 조성하고 간행처명만 달리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望月寺에서 간행된 「眞言集」은 四周雙邊에 10행 22자, 內向黑魚尾를 가지며, 목판이 아직도 망월사에 남아있다. 그 밖에 보장사는 「지장보살본원경」을 언해본으로, 重興寺는 「天地冥陽水陸齊儀梵音刪補集」을, 回龍寺는 「水陸無遮平等齊儀撮要」를 간행하였다. 회룡사의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사주단변, 8행 17자 주쌍행, 내향2엽화문어미 黑口 등 주요판식이 간행년 미상인 불암사판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와 유사하다.

이상으로 간행처별로 양주지역에서 간행된 불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불서를 간행한 대부분의 사찰이 조선 왕실의 원찰 또는 지배세력의 지원 아래 있었다. 그래서 승유억불의 정책 아래 피폐해진 사찰과는 달리 사원의 재정 사정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불서를 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4. 내용별 분석

이 장에서는 양주지역에서 간행된 불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내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양주지역에서 간행된 99종의 불서를 「韓國十進分類法」, 국회도서관 「東洋關係細分展開表」,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D.D.C 東洋關係項目展開表」에 수록되어 있는 佛敎의 하위항목을 참고로 하여 ① 部別 經典⁹⁾과 疏·抄를 포함하는 佛敎經典 ② 고승대덕의 法話와 信行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佛敎信行 ③ 각종 法會와 佛敎儀式에 관한 것을 기록한 佛敎儀禮 ④ 歌辭, 詩 등을 작품을 담은 佛敎文集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불교경전이 71종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문집 13종, 불교신행 10종, 불교의례 5종이었다.

4.1 佛敎經典

불교경전이란 부처의 설법을 담은 불교 경을 가리키는 말로 經藏에 들어 있는 모든 경을 뜻하나, 최근에는 律藏에 속하는 律書와 論藏에 속하는 論書, 그 외에 후대 佛敎徒의 著述 등 불교사상이 담긴 책들 모두를 경전이라 부르며, 經, 律, 論 三藏이나 여러 고승의 저서 등을 모은 총서를 大藏經이라 한다. 다음은 양주지역에서 간행된 경전을 經集部, 大集部, 密敎部, 般若部, 寶積部, 本緣部, 法華部, 阿含部, 涅槃部, 僞經部, 華嚴部의 11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 經集部(9종) :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甘露社, 188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奉印寺, 1883), 佛說大報父母恩重經 3종(佛巖寺, 1687, 1795, 1796), 佛說大報父母恩

9) 일본의 大正新修大藏經은 경전을 阿含部, 本緣部, 般若部, 法華部, 華嚴部, 寶積部, 涅槃部, 大集部, 經集部, 密敎部의 10가지로 나누었고, 본고에서는 大藏經에 포함되지 못한 諸經 등의 迷信 또는 道教적 성향이 강한 경들을 모아 僞經部로 분류하였다.

重經 2종([佛巖寺], [1795], [1795-1797]),
佛說四十二章經(檜岩寺, 1449), 藥師琉璃光
如來本願功德經(佛巖寺, 1853)

■ 大集部(2종) : 지장보살본원경(보정사,
1879), 지장보살본원경언해(佛巖寺, 1765)

■ 密敎部(12종) : 觀世音菩薩六字大明
王陀羅尼神呪經(甘露社, 1908), 普徧光明焰
鬘清淨熾盛如意寶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
求陀羅尼經(寶光社, 1869), 佛說安宅神呪經
2종(佛巖寺, 1795, 1797), 佛說安宅神呪經([佛
巖寺], [1795-1797]), 佛說長壽滅罪護諸童
自陀羅尼經 2종(佛巖寺, 1796), 佛頂心觀世
音菩薩姥陀羅尼經(姜在喜, 1908), 眞言要抄
(佛巖寺, 1795), 眞言要抄([佛巖寺], [1795]),
眞言集(望月寺, 1800), 천수경(甘露社, 1908)

■ 般若部(12종) : 金剛經口訣(甘露社,
1883), 金剛經石柱(寶光社, 1869), 金剛經正
解(甘露社, 1883), 金剛經總提(甘露社, 1883),
金剛般若波羅密經 3종(佛巖寺, [1740], 1768,
1797), 金剛般若波羅密經 2종([佛巖寺], [18
세기후반]),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甘露社,
1883), 佛說十二摩訶般若波羅蜜多經 2종(佛
巖寺, 1797)

■ 寶積部(6종) : 佛說觀無量壽佛經(內院
庵, 1853), 佛說大乘無量壽莊嚴經 2종(佛巖寺,
1795), 佛說阿彌陀經要解([內院庵], 1853), 불
설아미타경(미상, 미상), 불설아미타경(덕사,
1871)

■ 法華部(5종) : 高王觀世音經甘露社(甘
露寺, 1908), 고왕관세음경甘露社(甘露寺, 1908),
妙法蓮華經佛巖寺(佛巖寺, [17세기]), 佛說

高王觀世音經 2종(佛巖寺, 1795)

- 涅槃部(1종) : 佛遺敎經檜岩寺(檜岩寺,
1449)

■ 僞經部(24종) : (增訂)敬信錄(佛巖寺,
1795), 敬信錄諺釋(佛巖寺, 1796), 佛說 龜王
經 2종(佛巖寺, 1795, 1797), 佛說龜王經([佛
巖寺], [1795-1797]), 佛說明堂神經 2종(佛
巖寺, 1795, 1787), 佛說明堂神經([佛巖寺],
[1795-1797]), 佛說山王經(佛巖寺, 1881), 佛
說壽生經抄 3종(佛巖寺, 1796, 1797), 佛說
天尊却瘟瘟神呪經 2종(甘露社, 1908), 佛說
天地八陽神呪經 2종(佛巖寺, 1795, 1797), 佛
說天地八陽神呪經([佛巖寺], [1795-1797]),
佛說天地八陽神呪經(姜在喜, 1908), 佛說歡
喜龜王經([佛巖寺], 1795), 佛說歡喜龜王經
(佛巖寺, 1797), 불설턴돈각은황신주경 2종(甘
露社, 1908), 太上玄靈北斗本命延生眞經 道
說庵, 1864)

이상과 같이 양주지역에서는 모두 71종의 경
전이 간행되었고,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은 僞
經部로 24종이었다. 위경은 대부분은 인도로부
터 전래한 불교가 문화와習俗이 다른 중국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道敎나 土着巫俗信
仰을 받아들이면서 탄생한 경전으로 질병의 치
료나 祈福의 성격이 강하다.¹⁰⁾ 위경뿐 아니라
세번째로 많이 간행된 密敎部도 呪術의이고
토착신앙과 결합된 요소가 많은데 전체 경전
중 50%에 이르는 36종의 경전이 現世祈福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조선후기 양
주의 불교와 그 종교적 역할, 일반민중의 信仰

10) 이들 위경은 무속신앙에서 굿을 할 때 독경되기도 한다.

行態를 보여주는 斷面이다.

12종이 간행된 若部の 「金剛經」은 모두 9종이 간행되어 單一經典으로는 가장 많은 간행을 보이고 있으며, 18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간행되고 있다. 이는 普照 知訥이후 禪宗 중심의 한국불교에서 「금강경」이 중요경전으로써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9종이 간행된 經集部에서는 儒敎를崇尚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부모의 恩惠를 강조한 모두 5종의 「父母恩重經」이 간행되었다. 法華部에서 4종이 간행된 「高王觀世音經」은 觀音信仰에 의지하여 괴로움과 재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세기복적 성격이 강하며, 이는 위경과 밀교부 경전의 간행이 많은 것과 一脈相通한다. 그러나, 법화부의 대표적 경전인 「法華經」은 단 1종 간행되었다. 寶積部는 阿彌陀佛의 願力을 믿고 그 힘에 의해 極樂淨土에 往生할 것을 發願하는 淨土思想이 담긴 淨土三部經 6종이 간행되었다. 大集部에서는 地藏菩薩의 衆生救濟의 誓願을 담은 「地藏經」 2종이, 열반부에서는 부처님의 遺訓이라 할 수 있는 「佛遺敎經」이 檜岩寺에서 간행되었다.

그런데 1종의 경전도 간행되지 않는 部도 있으니, 阿含部와 本緣部, 華嚴部가 그것이다. 아함과 본연은 小乘佛敎에 속하는 경전이니 大乘佛敎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간행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한, 「華嚴經」도 그 양이 彪大하여 일개 지방사찰에서 간행하기 쉬운 경전은 아니다.

이러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봉선사는 1551년(명종 6) 敎宗의 首寺刹로 지정되어 전국의 교종사찰을 이끌고 교학을 진흥시킬 수

있는 중추적 위치에 있었던 만큼 그 대표적 경전인 「화엄경」과 「법화경」에 대한 간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만,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거치면서 질이 燒失되고, 전란이후 더욱 선종중심이 된 한국불교와 기복신앙만을 찾는 폐해진 민심 사이에서 교학이 설 자리가 없었고, 이것이 불서간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4.2 佛敎信行

불교신행에서는 고승대덕의 法語, 語錄, 敎語 등을 기록한 간행물과 佛敎信仰 및 信行, 傳記에 관한 서적을 法話와 信行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法話(6종) :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甘露庵], 1878), 廬山蓮宗寶鑑(內院庵, 1853), 法海寶筏(甘露社, 1883), 禪門拈頌集說話(奉印寺浮圖庵, 1889), 六祖大師法寶壇經(寶光社, 1869), 人天眼目(檜岩寺, 1395)
- 信行(4종) : 戒殺方生文(姜在喜, 1908), 釋迦如來成道應化事蹟記(佛巖寺, 1673), 修禪結社文(奉印寺, 1860), 持經靈驗傳([佛巖寺], [1795-1797])

불교신행에는 모두 10종의 서적이 간행되었다. 모두 6종의 불서가 간행된 법화의 「禪門拈頌集說話」, 「六祖大師法寶壇經」, 「人天眼目」은 선종계로서 여러 祖師와 禪師의 중요한 말을 모아 수록한 것이며, 「法海寶筏」은 선교양종의 가르침을 모은 책이다.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는 여러 法席에서의 語錄을 모은 것이며, 그 외 念佛文에 관한 敎理와 문

구를 모은 「廬山蓮宗寶鑑」이 있다.

信行에서는 4종 서적이 간행되었으며, 參禪 등의 修行 외에 「地藏經」 등을 통한 信仰活動을 포함한다. 「釋迦如來成道應化事蹟記」는 釋迦牟尼의 一代記와 그의 歷代 제자 244인의 史蹟을 묘사한 그림과 글이 모두 212매의 목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2권은 부처님의 行蹟 등 일대기가 실려 있고 제3, 4권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어받은 傳法弟子들의 행적이 실려 있으며, 내용에서 신라시대 義湘·慈藏과 고려시대 義通 등의 사적도 실려 있다.

4.3 佛教儀禮

이 장에서는 法會나 齋 등 각종 불교의식에 관한 서적을 분류하였다. 다음은 법회나 의식에 관한 불서의 간행 현황이다.

- 法會(1종) : 甘露法會(甘露社, 1882)
- 儀式(4종) :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佛巖寺, [17세기]),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回龍寺, 1636), 天地冥陽水陸齋儀([佛巖寺], [17-19세기]),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重興寺, 1721)

모두 5종의 불서가 간행되었고 法會 관련 1종, 水陸齋 하는 방법·의식 따위를 자세히 정한 책인 水陸齋儀가 4종이 있다. 수록제는 물이나 육지에 있는 孤魂과 餓鬼에게 法食을 供養하는 법회로 梁나라 武帝가 誌公에게 명하여 阿難이 면연귀왕에게 平等斛食을 세우던 뜻으로 “水陸儀文”을 만들게 하여 금산사에서 시행한 것이 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光宗 22년(971) 水原 葛陽寺에서 惠居國師가 처음

시행하였다.

4.4 佛教文集

부처의 世界觀과 宗教思想 등을 주제로 하는 詩, 歌辭 등의 文學作品과 승려들의 개인 문집 등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文集(13종) : 權禪曲([佛巖寺], [1795-1797]), 權禪曲(姜在喜, 1908), 三峰集(晚悔菴, [1869]), 三峰集(寶光社, [1869]), 蓮邦詩選(甘露社, 1882), 修善曲([佛巖寺], [1795-1797]), 參禪曲 2종([佛巖寺], [1795-1797]), 參禪曲(姜在喜, 1908), 尊說因果曲(奉印寺, [1795-1797]), 海東初祖高麗國師太古和尚太古庵歌八科(奉印寺, 1860), 華潭大師浮屠碑銘(晚悔菴, [1869]), 華潭大師浮屠碑銘(寶光社, [1869])

이상에 의하면 총 13종의 문집이 간행되었으며, 이들은 詩 1종, 歌辭 7종, 碑文 2종, 歌 1종, 시와 문이 섞인 개인문집 2종으로 다양한 작품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勸禪曲」, 「修善曲」 등 불교적 내용의 가사작품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상으로 양주에서 간행한 불서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종합하여 보면 禪宗과 祈福信仰에 관한 서적의 간행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부분의 서적이 조선후기에 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선불교가 禪宗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사회적 혼란 속에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祈福佛教가 성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판종별 형태 분석

이 장에서는 양주에서 간행된 불서를 형태적인 여러 특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板種에 따라 확연히 다르므로 木版本과 木活字本로 나누어 匡郭, 行款, 魚尾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전체적 현황은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5.1 목판본

앞에서 양주지역 불서간행 현황을 살펴본 것처럼 총 99종의 불서중 85 종이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또한, 목판본은 朝鮮開國 직후인 1395년부터 韓日合邦 직전인 1908년까지 조선시대 전 시대를 통틀어 간행되었으나, 목활자본은 1869년에야 등장하여 1889년까지 20년간 간행되었을 뿐이니 그 양적인 면이나 역사적인 면에서 양주의 불서는 대부분 목판본이었다. 특히 3세기에 걸쳐 전체 목판본의 62%에 이르는 53종의 불서를 간행하여 불암사는 이 지역 불서간행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5.1.1 匡郭

인쇄면의 사주에 둘러진 검은 선인 匡郭은 四周單邊, 四周雙邊, 左右雙邊 세가지 종류가 있다. 조사결과 양주지역에서 간행된 불서에는 匡郭의 세가지 형태가 모두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四周單邊은 21종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선 초기인 1449년부터 1908년까지 오랜 세월을 걸쳐 나타난다. 간행처도 佛巖寺 9종, 內院庵 3종, 奉印寺·檜岩寺 각 2종, 甘露社·덕사·道詵庵·보정사·回龍寺 각 1종

으로 매우 다양하다. 四周雙邊은 1673년 불암사판 「釋迦如來成道應化事蹟記」에서 처음 보이며, 가장 많은 63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 대표적인 광곽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불암사(44종)와 감로사(15종) 두 사찰의 판본에서 많이 나타난다. 左右雙邊은 1395년 「人天眼目」 1종이 존재하고, 불서간행이 활발했던 17~18세기에도 더 이상의 판본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려판식의 영향을 받아 조선전기에 나타난 광곽의 특이한 형태로 생각된다.

5.1.2 行款

行款은 한 장에 수록된 본문의 행수와 한 행에 수록된 글자수를 말하며, 胡蝶裝, 包背裝, 線裝과 같이 板心이 있는 것은 半葉을 기준으로 行字數로 표시한다. 부록 〈양주지역 소재 사찰의 불서간행 종합목록〉에서 보는바와 같이 행수는 5행, 7행, 8행, 10행, 11행, 13행의 6종류가 있으며, 행자수는 12자, 13자, 14자, 16자, 17자, 18자, 20자, 21자, 22자, 24자가 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행관은 11행 22자로 37종이며, 10행 20자가 25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특히 11행의 행수는 39종의 불암사본과 이를 중각한 강재희본에서만 나타나 불암사본을 대표하는 형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0행 20자는 감로사(13종), 불암사(5종), 내원암(3종), 봉인사(3종), 회암사(1종) 등 여러 사찰에 고루 나타나고 있다.

1796년에 간행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과 「불설장수멸죄호저동자다라니경」, 「불설수생경초」는 합본임에도 행자수가 11행 22자와 10행 21자로 틀리고, 어미 또한 내향이엽화문어미와

상흑어미로 다르다. 또,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판형이 1795년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1796년에 1795년에 판각한 「불설대보부모은중경」과 1796년에 판각한 「불설장수멸죄호저동자다라니경」, 「불설수생경초」를 함께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5.1.3 魚尾

관심의 중봉 양쪽에 물고기의 꼬리모양으로 표시된 魚尾에는 無魚尾, 白魚尾, 黑魚尾, 花紋魚尾 4종류가 있다. 양주지역 목판본 불서의 어미 현상은 花紋魚尾가 62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黑魚尾가 16종, 無魚尾가 6종, 白魚尾가 1종 이었다.

조선후기 등장한 화문어미는 1엽, 2엽, 3엽의 세 종류가 있으며, 2엽이 59종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48종을 차지하고 있는 內向二葉花文魚尾는 조선후기 불서의 대표적 어미라 하겠다. 흑어미는 어미방향에 따라 11종의 上魚尾와 5종의 內向魚尾로 나뉘지며, 이는 내향어미 48종, 상어미 14종의 화문어미와는 대조적이다. 이를 통해 화문어미일때는 내향어미가, 흑어미일때는 상어미가 짝을 이뤄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향화문어미는 2엽에서만 나타나고, 1엽과 3엽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5.2 목활자본

양주에서 간행된 불서는 판종으로만 보면 목판본이 절대우위를 차지하나, 1869년 목활자본

간행이후는 1889년까지 20년 남짓한 동안은 목판본 7종, 목활자본 14종이 간행되어 잠시나마 목활자를 통한 불서간행이 매우 활발했다. 총 14종 중 감로사가 6종, 보광사가 5종의 불서를 간행한 것으로 볼 때, 양주지역에서 처음 목활자본 불서를 선보인 보광사와 감로사가 이를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1 匡郭

앞선 목판본에서 사주단변은 전시대에 걸쳐 사주쌍변은 조선후기에 많이 사용되었다. 조선후기양주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불서들의 광곽은 사주단변과 사주쌍변이 7종으로 똑같이 나타난다. 간행처에 따라 감로사와 봉인사 부도암의 광곽은 사주단변을 보광사와 만회암은 사주쌍변을 사용하였다.

5.2.2 行款

목판본의 행관은 11행 22자와 10행 20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행수나 행자수에서 있어 다양한 판본들이 등장하였다. 이와 달리 목활자본의 행관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전체 14종 중 86%인 12종이 10행 20자를 취하고 있으며, 나머지 2종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9행 18자(1종), 10행 21자(1종)이다. 목판본에서와 마찬가지로 10행 20자가 행관에서 主流를 이루는 것으로 볼 때, 조선 후기에는 10행 20자가 행관의 기본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행에 있어 특이한 점은 「法海寶筏」이 施主者가 註雙行으로 나타나는 것과¹¹⁾ 그 부분

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법해보筏」 “信士德雲居士法界心施贊印此…光緒癸未七月 日甘露社識”

인 空欄으로 처리된 것¹²⁾ 두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活字本の 특성상 내용의 加減이 容易했던 탓에 일정량의 불서를 찍어내면서 그 일부는 특정 시주자를 표기하여 배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晚悔菴과 寶光社에서 펴낸 『三峰集』에서도 나타난다. 내용과 형태적 특징이 모두 동일하고 간행처부분만 차이를 보이는 『삼봉집』은 두 사찰이 공동으로 일정수량을 간행하고 해당 수량만큼 사찰명만 바꿔 찍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5.2.3 魚尾

이상에서 살펴본 광곽과 행관은 주를 이루었던 목판본과 목활자본의 형태가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데 반해 목활자본의 어미는 목판본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목판본은 內向二葉花文 魚尾가 주를 이루고 上黑魚尾도 많이 간행되었는데 반해 목활자본에서는 흑어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13종의 上白魚尾가 대체를 이루고 있으며, 어미의 방향에서도 內向魚尾는 보이지 않고 14종 모두 上魚尾들만 나타난다.

이상으로 양주지역에서 간행된 불서의 광곽, 행관, 어미의 형태적 특징을 판종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목판본은 조선시대 전시기를 걸쳐 간행되었으며, 총 간행 불서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匡廓은 사주쌍변이 많이 간행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판본의 간행시기가 조선후기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行款은 11행 22자와 10행 20자가 주를 이루는데, 11행인 행수는 대부분의 불암사본과 그 重刻本인

강재희본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魚尾는 화문어미가 62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문어미는 내향2엽어미와 흑어미는 상어미와 주로 짝을 이루어 사용되었다. 목활자본의 광곽은 간행사찰에 따라 달리 나타났으며, 감로사와 봉인사 부도암은 사주단변을, 보광사와 만회암은 사주쌍변을 사용하였다. 행관과 어미는 10행 20자와 상백어미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다른 양식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목활자본의 행관과 어미는 어느 정도 定型化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교적 내용의 가감이 손쉬운 활자본의 특성상 동일한 판에 간행처나 시주자 등 몇 행의 내용만을 달린 판본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6. 결 론

이상에서 京畿道 楊州地域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의 현존하는 諸板本을 조사하고 이를 刊行處別, 內容別, 形態別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 낼 수 있었다.

첫째, 조선시대 양주지역 사찰에서는 총 99종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특히 佛巖寺는 전체 양주지역 불서의 절반을 간행했을 정도로 印刷活動이 매우 활발하였던 사실을 밝혔다.

둘째, 불서를 간행한 대부분의 사찰에는 지배계층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었다. 陵寢寺刹과 왕실 또는 고위층의 願刹은 사원경제가

12) 규장각 소장 『법해보별』 “光緒癸未孟秋孟蘭會日甘露社識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이것은 불서간행으로 이어졌다.

셋째, 내용별로는 경전류의 간행이 활발하였는데, 특히 現世祈福의 성격이 강한 僞經과 密敎 경전과 空思想을 강조한 「般若經」 등이 많이 간행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불교가 禪宗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사회적 혼란 속에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기복불교가 盛行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넷째, 시기적으로 양주지역 불서는 조선후기에 활발히 간행되었다. 1395년과 1449년에 간행된 檜岩社本을 제외한 모든 불서가 1636년과 190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고, 그 중 상당수의 불서가 간행된 18세기에는 佛巖寺가, 19세기에는 內院庵, 寶光社, 甘露寺가 이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판종별 간행 현상을 보면, 목판본은 85종, 목활자본은 14종 간행되었다. 목판본은 朝鮮開國 직후인 1395년부터 한일합방 직전인 1908년까지 조선시대 전 시대를 통틀어 간행되었으며, 목활자본은 1869년에야 등장하여 1889년까지 20년간 간행되었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목판본은 주로 四周雙邊 11행 22자 또는 10행 20자, 內向二葉花文魚尾의 판식을 가진다. 또한 11행의 행수는 불암사본 대부분과 이를 증각한 강재희본에서만 나타나 불암사본의 대표적 형태적 특징 중의 하나임을

밝혔다.

일곱째, 木活字本의 판식은 10행 20자와 上白魚尾의 정형화된 틀에 광곽은 간행처에 따라 사주단변과 사주쌍변이 고정되어 사용되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었던 목판본과 달리 불과 20년 남짓한 기간동안 몇몇 사찰에서만 간행된 목활자본은 변화가 나타날 만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여덟째, 사찰간 공동협력에 의한 간행 이루어졌다. 목활자본인 「三峰集」과 「華潭大師浮屠碑銘」은 공동으로 판을 조성한 후 간행처 부분만을 바꿔 印出하였고, 목활자본인 「太上玄靈北斗本命延生真經」은 道詵庵에서 판각, 인출하여 광주 수도산 奉恩寺에 경판을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양주의 역사와 사찰을 살펴보고, 현존하는 판본 현황과 내용별, 형태별 특징을 파악하였다.

양주는 선사시대부터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있었으며, 조선시대에 많은 불서가 간행되어 불교사 및 인쇄문화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의 결과는 조선 후기 양주를 포함한 지방 인쇄문화 발달과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종교적 측면에서도 경전 인쇄를 통한 불교의 성격, 신앙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1984. 『漢籍目錄』. 서울: 고려대학교.
- 국립중앙도서관. 1970. 『국립중앙도서관고서목록』, I-V.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_____. 1970-2004. 『선본해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회도서관. 1959. 『東洋關係細分展開表』. 서울: 國會事務處.
- 東國大學校 中央圖書館. 1981. 『古書目錄』. 서울: 東國大學校中央圖書館.
- _____. 1984. 『고서목록』. 서울: 동국대학교중앙도서관.
- _____. 1984. 『D.D.C 東洋關係項目展開表』. 서울: 東國大學校中央圖書館.
- 朴相國. 1987.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文化財管理局.
-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 _____. 1978-1987.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1-8.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78-1987.
- _____. 1994-2003.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續集』.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 楊州文化院. 1992. 『楊州郡誌』. 상·하. 경기: 楊州文化院.
- 장서각. 1972. 『장서각도서한국관총목록』. 서울: 탐구당.
- 鄭亨遇, 尹炳泰, 共編. 1995. 『한국의 책판목록』. 상·하. 서울: 保景文化史.
- 한국도서관협회분류위원회. 1997. 『韓國十進分類法』.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藏書目錄: 古書篇』.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 록〉 양주지역의 사찰 불서간행 종합목록

[범례]

1) 권수제를 기본서명으로 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함. 2) 여러 불서를 합본한 서적은 1책으로 간주함. 3) 합본의 경우 첫 번째 불서의 서명을 기준. 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규장각은 별개 소장처로 구분. 4) 소장처 뒤 #표시는 경관소장처 임.

번호	書名	著(編)者	刊行處	刊行年	板種	匡郭	行款	魚尾	收藏處
1	甘露法會	葆光居士 述	甘露社	1882	목활자	사주 단변	10행 20자	상백어미	규장각
2	(增訂)敬信錄	미상	佛巖寺	1795	목판	사주 쌍변	11행 22자	내향2엽화문어미	국립, 불암사 #
3	敬信錄彙釋	미상	佛巖寺	1796	목판	사주 쌍변	11행 21자	내향백어미	국립, 불암사 #
4	戒殺方生文	株宏 撰	姜在喜	1908	목판	사주 단변	10행 20자	상2엽화문어미	국립
5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	正觀 承宣	[甘露庵]	1878	목판	사주 쌍변	10행 20자	상흑어미	국립, 고대
6	觀世音菩薩六字大明王陀羅尼神呪經	朴銑默 增輯	甘露社	1908	목판	사주 쌍변	10행 20자	상2엽화문어미	규장각, 국립
7	金剛經口訣	大鑑禪師 說	甘露社	1883	목활자	사주 단변	10행 20자	상백어미	국립, 고대
	金剛經正解	龔 綵 註							
	金剛經總提	王化隆							
8	金剛經石註	石成金 集註	寶光社	1869	목활자	사주 쌍변	10행 20자	상백어미	규장각
9	金剛般若波羅密經	鳩摩羅什 譯	佛巖寺	[1740]	목판	사주 단변	10행 20자	내향흑어미	국립, 불암사 #
10	金剛般若波羅密經	미상	[佛巖寺]	[18세기 후반]	목판	사주 단변	10행 20자	무어미	불암사 #
11	金剛般若波羅密經	鳩摩羅什 譯	[佛巖寺]	[18세기 후반]	목판	사주 쌍변	10행 20자	내향2엽화문어미	불암사 #
12	金剛般若波羅密經	구마라습 역	佛巖寺	1768	목판	사주 단변	10행 20자	무어미	불암사 #
13	金剛般若波羅密經	鳩摩羅什 譯	佛巖寺	1797	목판	사주 쌍변	10행 21자	상흑어미	고대, 불암사 #
	佛說十二摩訶般若波羅密經	미상							
14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得通 解	甘露社	1882	목판	사주 쌍변	10행 20자	무어미	규장각, 국립, 장서각, 중흥사 #
15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得通 解	奉印寺	1883	목판	사주 쌍변	10행 20자	무어미	국립, 장서각
16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	了通禪師 註	甘露社	1883	목활자	사주 단변	10행 20자	상백어미	국립, 고대
17	妙法蓮華經	鳩摩羅什 譯	佛巖寺	[17세기]	목판	사주 단변	8행 13자	내향2엽화문어미	불암사 #
18	法海寶筏	[蓮舫道人]	甘露社	1883	목활자	사주 단변	10행 20자	상백어미	규장각, 국립, 고대
19	普徧光明焰鬘清淨熾盛如意寶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求陀羅尼經	不空 譯	寶光社	1869	목활자	사주 쌍변	10행 20자	상백어미	국립
20	佛說觀無量壽佛經	晁良耶舍 譯	內院庵	1853	목판	사주 단변	10행 20자	내향2엽화문어미	규장각, 국립, 장서각, 고대, 동대, 홍국사#

21	佛說大報父母恩重經	미상	佛巖寺	1687	목판	사주 단변	10행 18자	내향흑어미	국립, 불암사 #
22	佛說大報父母恩重經	미상	佛巖寺	1796	목판	사주 쌍변	11행 22자	내향2엽화문어미	국립, 장서각, 불암사#
	佛說長壽滅罪護諸童自陀羅尼經	佛陀波利 譯					10행 21자	상흑어미	
	佛說壽生經抄	미상							
23	佛說大乘無量壽莊嚴經	法賢 譯	佛巖寺	1795	목판	사주 쌍변	11행 22자	내향2엽화문어미	국립, 동대, 불암사#
	佛說高王觀世音經	미상							
24	佛說大乘無量壽莊嚴經	法賢 譯	佛巖寺	1795	목판	사주 쌍변	11행 22자	내향2엽화문어미	규장각, 국립, 불암사#
	眞言要抄	미상							
	佛說大報父母恩重經	미상							
	佛說高王觀世音經	미상							
25	佛說四十二章經	迦葉摩騰 譯	檜岩寺	1449	목판	사주 단변	8행 17자	내향흑어미	동대
	佛遺教經	鳩摩羅什 譯							
26	佛說山王經	미상	佛巖寺	1881	목판	사주 단변	11행 18자	내향2엽화문어미	불암사 #
27	佛說阿彌陀經要解	鳩摩羅什 譯	[內院庵]	1853	목판	사주 단변	10행 20자	내향2엽화문어미	장서각, 홍국사#
28	佛說長壽滅罪護諸童自陀羅尼經	佛陀波利 譯	佛巖寺	1796	목판	사주 쌍변	10행 21자	상흑어미	국립, 장서각, 불암사#
	佛說壽生經抄	미상							
29	佛說天尊却瘟瘟神呪經	朴永默 參閱	甘露社	1908	목판	사주 쌍변	10행 20자	상2엽화문어미	규장각
	불설턴돈각온왕신주경	박선묵 번역							
30	佛說天尊却瘟瘟神呪經	朴永默 參閱	甘露社	1908	목판	사주 쌍변	10행 20자	상2엽화문어미	장서각
	불설턴돈각온왕신주경	박선묵 번역							
	천수경	미상							
	高王觀世音經	미상							
31	高王觀世音經	미상	姜在喜	1908	목판	사주 쌍변	11행 22자	내향2엽화문어미	국립
	佛說天地八陽神呪經	義淨 譯							
	參禪曲	智瑩 述							
32	佛說天地八陽神呪經	義淨 譯	佛巖寺	1795	목판	사주 쌍변	11행 22자	내향2엽화문어미	규장각
	佛說歡喜 龍王經	미상							
	佛說龍王經	미상							
	佛說明堂神經	미상							
	佛說安宅神呪經	미상							
33	佛說天地八陽神呪經	義淨 譯	[佛巖寺]	[1795-1797]	목판	사주 쌍변	11행 22자	내향2엽화문어미	국립
	佛說明堂神經	미상							
	佛說龍王經	미상							
	佛說歡喜 龍王經	미상							
	佛說安宅神呪經	미상							
	佛說大報父母恩重經	미상							
34	參禪曲	智瑩 述	佛巖寺	1797	목판	사주 쌍변	11행 22자	내향2엽화문어미	고대
	佛說天地八陽神呪經	義淨 譯							
	佛說龍王經	미상							
	佛說歡喜 龍王經	미상							
	佛說安宅神呪經	미상							
	佛說明堂神經	미상							
	佛說壽生經抄	미상							
	佛說十二摩訶般鄢波羅蜜多經	미상							

35	불설아미타경	구마라습 역	미상	미상	목판	사주 쌍변	7행 14자	무어미	홍국사 #
36	불설아미타경	구마라습 역	덕사	1871	목판	사주 단변	10행 18자	상1엽화문어미	장서각, 동대, 홍국사#
37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	미상	姜在喜	1908	목판	사주 쌍변	10행 20자	상후어미	국립
38	三峰集 華潭大師浮屠碑銘	[知湍 著] 李裕元 撰	晚悔菴	[1869]	목활자	사주 쌍변	10행 20자	상백어미	국립
39	三峰集 華潭大師浮屠碑銘	[知湍 著] 李裕元 撰	寶光社	[1869]	목활자	사주 쌍변	10행 20자	상백어미	동대
40	釋迦如來成道應化事蹟記	미상	佛巖寺	1673	목판	사주 쌍변	13행 24자	내향2엽화문어미	장서각, 고대, 불암사#, 동대#
41	禪門拈頌集說話	覺雲 撰	奉印寺 浮圖庵	1889	목활자	사주 단변	10행 21자	상2엽화문어미	국립, 동대
4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미상	佛巖寺	[17세기]	목판	사주 단변	8행 17자	내향2엽화문어미	불암사 #
43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미상	回龍寺	1636	목판	사주 단변	8행 17자	내향2엽화문어미	규장각, 서울대#
44	修禪結社文 海東初祖高麗國師太古和尚 太古庵歌八科	楓皋居士 述 미상	奉印寺	1860	목판	사주 단변	10행 20자	상후어미	서울대, 국립, 장서각, 동대
45	修善曲 尊說因果曲 權禪曲 參禪曲	미상 미상 미상 미상	[佛巖寺]	[1795-1797]	목판	사주 쌍변	11행 22자	내향2엽화문어미	규장각, 불암사#
46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玄獎 譯	佛巖寺	1853	목판	사주 단변	10행 20자	상1엽화문어미	불암사 #
47	廬山蓮宗寶鑑	普度 編集	內院庵	1853	목판	사주 단변	10행 20자	내향2엽화문어미	서울대, 국립, 동대, 홍국사 #
48	蓮邦詩選	廣貴 輯	甘露社	1882	목판	사주 쌍변	10행 20자	상2엽화문어미	국립
49	六祖大師法寶壇經	法海 集	寶光社	1869	목활자	사주 쌍변	9행 18자	상백어미	국립, 동대
50	人天眼目	智昭 述	檜岩寺	1395	목판	좌우 쌍변	10행 20자	상후어미	고대
51	持經靈驗傳	미상	[佛巖寺]	[1795-1797]	목판	사주 쌍변	11행 22자	내향2엽화문어미	불암사 #
52	지장보살본원경	대원 해설	보정사	1879	목판	사주 단변	10행 16자	상3엽화문어미	국립
53	지장보살본원경언해	미상	佛巖寺	1765	목판	사주 쌍변	10행 16자	상3엽화문어미	불암사 #
54	眞言要抄 佛說大報父母恩重經	미상 미상	[佛巖寺]	[1795]	목판	사주 쌍변	11행 22자	내향2엽화문어미	국립, 불암사 #
55	眞言集	龍巖 編	望月寺	1800	목판	사주 쌍변	10행 20자	내향후어미	규장각, 국립, 망월사#
56	天地冥陽水陸齋儀	미상	[佛巖寺]	[17-19세기]	목판	사주 단변	10행 17자	내향2엽화문어미	불암사 #
57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智還 集	重興寺	1721	목판	사주 쌍변	10행 18자	내향2엽화문어미	서울대, 국립
58	太上玄靈北斗本命延生眞經	미상	道詵庵	1864	목판	사주 단변	5행 12자	무어미	서울대, 규장각, 국립, 동대